



2020년 10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 28.(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0. 28.(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과장	이종석 과장(044-203-4370)	담당자	최태준 사무관(044-203-4371)

미래차, 가전·전자 등 6대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DX) 앞장서다

- 산업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협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 본격 출항
- ▶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 산업 디지털 전환에 연구개발, 펀드, 금융 등 2.9조원 이상 지원(~'25년)
- ▶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 지원하기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제정 추진(10.14일, 고민정의원 발의)

① (발굴) '20년 미래차, 조선 등 6개 분야* 연대 결성, 20개 과제 발굴 추진

-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 업계·기업의 참여의지 및 관심도, 데이터 축적·활용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미래차, 가전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소재 6개 전략분야 우선 추진

< 분야별 디지털 전환 방향(예시)>

분야	현재(As-Is)	미래(To-Be)
미래차	▶ 고장 등에 수동적 대응 ▶ 공급자 중심 서비스	▶ 전기차 배터리 등 부품 예지정비 ▶ 개인 맞춤형 보험·금융 상품 제공
가전전자	▶ 사용자 직접 제어 ▶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 홈 가전 간 연계, 자동 제어 서비스 ▶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
헬스케어	▶ 숙련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	▶ AI진단·분석 및 건강관리 컨설팅 ▶ 신약, 첨단 의료기기 등 개발
조선	▶ 선사·조선사 중심 발주에 대응 ▶ 생산·운항 고비용	▶ 선제적 선박 기자재 생산·재고 관리 ▶ 스마트야드, 자율운항 선박
유통	▶ 유통·물류 비효율로 인한 과로·안전사고 발생	▶ 물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 맞춤형 상품기획, 재고관리, 배송
소재부품	▶ 저부가 대량 생산 경쟁 심화	▶ 에너지 효율, 안전·환경성 제고, ▶ 신소재·공정 개발

② (지원) 발굴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사업화, 제도 등 패키지 지원

- (연구개발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등에 **5,200억원**(’21년) 규모의 **산업 연구개발 집중**
- (사업화) 산업 **지능화 펀드 4,000억원**(~’24년) 조성·지원, 신용보증·대출 등을 통한 **2조원의 저리 금융*** 지원
- (제도)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지원, **테마형 사업재편** 대상 선정·지원

③ (확산) 향후, 제도적 정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10.19일 발의, 고민정의원)을 조속히 제정하고,

- 법에 따라 향후 「산업 디지털전환 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
- 협업지원센터, 디지털전환 참조모델, 변화인재 양성 등의 **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0월 28일(수) 서울 드래곤 시티호텔(용산)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을 개최함

— <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 개요 > —

- (일시/장소) '20.10.28(수) 14:00~16:00 /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
- (참석자) 산업부 장관, 고민정 의원, 산업지능화협회 회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신한은행장,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협·단체장, 대·중견·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
 - * 산업 디지털 연대 참여기업 100여개사는 화상 연결을 통해 온라인 참석
- (주요 내용)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구축 업무협약,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등

- 동 연대는 지난 8.20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경제중대본)」의 후속조치로서,

- 산업 활동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계 공통의 문제 해결 및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과제의 발굴·시행을 위해 구축되었으며,
- 미래차, 가전·전자, 헬스케어, 조선, 유통, 소재부품 6개 분야에서 150여개의 기업·기관이 17여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음

1 (발굴)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를 결성하고,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 올해는 디지털 전환 성공 가능성, 산업 생태계 체계적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6개 분야 연대를 구성하고, 20개 과제 발굴을 추진할 것임
- 업종·분야별로 협회·전문연·출연연 등이 산업 디지털 전환의 셰르파(Sherpa)*가 되어 업계의 산업데이터 공유·협력 방향,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등을 지원할 것임

* 히말라야 등산대에 현지 지형, 기후 등을 조언하여 등정을 돕는 안내자

2 (지원)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성,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도화하고, 자금, 연구개발, 규제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① (자금) '24년까지 산업 지능화 펀드 4,000억원을 조성·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1.5조원, 신한은행의 추가 신용 대출 5,200억원 등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임
 - ② (연구개발) 또한, 산업 가치사슬 전 단계에 걸쳐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연구개발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해 5,200억원('21년)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③ (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제품 출시, 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신속처리를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의 걸림돌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 디지털 전환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군(群) 단위로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일괄 승인을 추진하고, 계획수립-이행점검-애로해소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지원도 강화할 것임
- 이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산업지능화협회, 산업연구개발 전담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과제 발굴과 고도화 시행을 위한 지원에 협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③ **(확산)** 향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혁신 과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10.19일 발의, 고민정의원)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법 제정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이는 ❶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분야별 연대) → ❷ 과제 고도화(정책협의회) → ❸ 선도과제 선정(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법* 제정시) → ❹ 확산(협업지원 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제 기반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이 민간 자발적으로 구축·확산될 수 있도록 공통 인프라 기술(플랫폼 아키텍처, 표준AI 등), 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제공하는 협업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 민간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 성공모델(디지털 전환 참조 모델) 보급, 민간 기업 대표의 인식 전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변화 인재(Change Agent) 양성 등도 병행할 것임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그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 “무엇보다 민간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나아가, “1957년 미-러 우주 경쟁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이기고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올린 것처럼,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촉발되는 글로벌 산업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우리가 보유한 제조·정보통신기술 기반과 민간의 성공 디엔에이(DNA)를 통해 ‘대한민국의 스푸트니크 모멘트(Sputnik Moment)’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언급함